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

조유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많겠지만 문자를 발명하고 기록을 할 줄 알게 된 점 또한 근본적인 다름이 아닐까 한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남기기 위해 개인은 개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기록하여 보존하고자 하였다. 아마 가장 손쉽게 기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땅바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쉽게 지워져 오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써 놓은 것을 오래가도록 할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고심하다 돌이나 바위·가죽·나무 등에 기록하면 오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기록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무겁거나 부피가 크고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끊임없는 궁리와 노력 끝에 종이를 발명하게 된다.

중국 후한 시대에 들어와 서기 105년 드디어 채륜에 의해 종이 제조법을 알게 됨으로써 가볍고 쓰기가 간편한 종이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종이의 개량이 계속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본격적인 지식의 전달이 가능해졌고 문화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보매체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책의 흥수 속에서 하루라도 벗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2000년이나 지탱해온 종이에 글이 쓰인 책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책은 왜 만들고 읽어야 하는 것일까.

거꾸로 생각해서 기록된 책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명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원시시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책을 통한 독서는 지혜의 샘물을 퍼올리는 수단이고 비판력을 키우고 사고를 넓혀 미래의 정신적인 지주로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 책의 중요함을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컴퓨터 기계 속이나 디스켓 한 장에 몇백권 분량의 책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21세기에는 책의 개념이 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종이책을 통해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 말은 반드시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서 전자책이나 컴퓨터로 독서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활자매체의 종말을 가져와 종이책의 파괴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으로는 21세기에 접어들면 지능지수가 아닌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의 흥수사태를 빚게 되고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화가 시대를 지배한다고 해도 책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눈은 종이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책 속의 지혜를 독서를 통해 얻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컴퓨터를 통한 기계 속의 책이 아니라 종이에 씌어진 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가 뒤숭숭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모두들 기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책의 노예가 되어 밝은 미래를 다같이 창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표지의 말

다나무로 만든 전통한지는 벽지, 장판지는 물론 장롱·신발·부채·바구니·실침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 사용됐다. 우리의 주거공간은 곧 한지가 에워싸고 있던 셈이다. 시멘트와 비닐, 유리 속에 갇힌 현대인에게 살아숨쉬는 한지는 그리움으로 자리한다. 지난 2월 4일부터 28일까지 위커헬미술관(관장 박계희)에서 열리고 있는 <한지 그 이후전>은 잃어버린 우리의 종이문화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다. 23인의 작가가 전시한 작품 가운데 전광영씨의 작품 <집합 96-1125>를 표지로 소개한다.

특별 기획	2	궁핍과 혼돈의 '백화제방' 시대 '출혈' 탄생 전후의 출판계 ①
출판인 칼럼	3	21세기는 불확실성의 미래인가 - 강경중
초점	4	'채광창 넘어' 들어오는 원고의 운명 투고된 원고 선별에 편집자들 몸살
출판계 소식	5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에 신용하·이영란 교수·외
출판 시평	6	'책 읽는 청소년 문화를 키우자' - 최성수
책값피 산책	7	<타르코프스키의 순교일기>를 읽고 - 남진우
리뷰	8	전통음악이 베푸는 '열락'의 세계
책제의 출간	9	30년째 펴내는 의료동인 '수석회' 수필집
출판 화제	10	문인들의 눈에 비친 이국의 문화예술
	11	주제별로 접근한 '일본알기' 책들
	12	컴퓨터 책은 '공룡'인가
	13	밀실에서 뛰쳐나온 동성에 논의
신간읽기	14	세계문자연구회 엮음 <세계의 문자>
	15	흡하우스 지음 <역사를 바꾼 씨앗 5가지>
작가 초대	16	소설집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 펴낸 최인석씨
독서 단상	17	'아쿠타가와' 상 받은 유미리의 <풀하우스> - 김형경
도서전 참관기	18	일본 출판사 '후쿠잉칸 쇼텐'을 돌아보고 - 박찬수
출판 포커스	19	20세기와 21세기의 공백 - 이중환
나의 학문과 책읽기	20	나를 '의사학'으로 이끈 역사읽기 - 황상익
연재 기획	22	80년대 시문학의 도도한 물결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② <금강>에서 <노동의 새벽>까지
책이 있는 풍경	24	사람에 귀기울이는 건축가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펴낸 김석철씨의 서거
서평	26	이기동 <백제사 연구> - 노중국 한국사상사연구회 <실학의 철학> - 성태용
	27	하이에크 <치명적 자만> - 공병호
확대 서평	28	<지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마음의 서거> - 안창림
의견	29	판권은 없다 - 김성재
이 책 그 사람	30	<뭇다 쓴 편지> 펴낸 김호기씨 <근대 수목채색화 감상법> 펴낸 최열씨
	31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펴낸 최윤정씨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펴낸 양진모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④